

第七十篇 全州

出 席 者
(序 號 號)

主要都市 遷徙

全北小農救濟資金

今年度엔二二萬圓

來年엔七十五萬圓을 實付

전주 사립들

被告十



국립전주박물관
0007656

繁榮策

○정리위원이주형

記者 全州는 府廳所在地로 地理의 上으로 六條나 捕鯊의 上으로 三萬七千餘人인 人口가 居住하는 地이다. 繁榮의 爲기 爲야 할 策은 何로 爲야 할 否乎? 全州는 府廳所在地로 地理의 上으로 六條나 捕鯊의 上으로 三萬七千餘人인 人口가 居住하는 地이다. 繁榮의 爲기 爲야 할 策은 何로 爲야 할 否乎?

曹 領年 早의 際 全 國의 全 體가 全 州로 遷徙하는 事가 起 然한 事이 有 矣. 全 州는 府 廳 所 在 地로 地 理 的 上 六 條 나 捕 鯊 의 上 三 萬 七 千 餘 人 인 人 口 가 居 住 하 는 地 이 也. 繁 榮 의 爲 기 爲 야 하 는 策 은 何 로 爲 야 하 는 否乎?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自轉車 全 州 에 서 南 門 通 으 로 移 轉 秋 藏 共 販 開 始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全 州 北 道 의 各 邑 小 農 救 濟 資 金 來 年 엔 七 十 五 萬 圓 을 實 付 하 려 한 事 이 有 矣.

신문으로 본 전주, 전주사람들

인 쇄 : 2001년 8월 1일

발 행 : 2001년 8월 1일

지 은 이 :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펴 낸 이 : 전주시

561-7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인쇄제작 : 애드뱅크

560-0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26-2

(비매품)

목 차

19070년대 11

푸른 전주만들기 운동 | 전주시 72년 첫사업으로 푸른 전주만들기운동을 전개했다. 푸른 전주만들기 사업으로는 10만인의 기념식수, 푸른 동산만들기, 꽃동네 만들기 등인데 나무은행을 설치 예약하여 기념식수로서 푸른 전주를 만들 계획이다. 결혼, 출생, 생일, 회갑, 입학, 졸업, 승진 등에 관상목 대금을 나무은행에 예치하면 기증자의 명패와 함께 나무를 심게 된다. 한편 이목대엔 리기다 히말리아시다 등을 사회단체 및 기업체의 헌수로 푸른 동산을 만들게 되며 각 공원 입구 및 부락입구 등엔 코스모스 채송화 등 1천6백15만본을 식재, 꽃동네를 만들기로 했다.(72. 1. 6)

졸업시즌, 들뜬 해프닝 풍조 | 73학년도의 중고졸업식의 피크를 이룬 11일 전주시내는 일부 이성을 잃은 졸업생들의 탈선행위로 소란스러웠다. 전주시내에서만도 이날 22개의 각급학교가 일제히 졸업식을 가졌는데 졸업생의 일부는 교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며 얼굴과 옷에 밀가루를 칠하고 거리를 누비며 방황,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도교위는 매년 졸업식 때면 이러한 학생들의 탈선과 방종을 막기 위해 수차에 걸쳐 해프닝쇼금지 퇴폐풍조근절 허례허식타파 등을 각급 학교장에 강력 지시해 왔으나 이같은 학생들의 들뜬 졸업추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학생지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74. 1. 12)

1980년대 82

난장뒀네... 구경가세 | 추억만으로 남아있던 난장이 고도전주에서 문을 열었다. 전주시가 26회 풍남제를 맞아 개설한 난장은 매곡교 다리밑 모래밭이 아닌 폭 40m의 광로 아스팔트위에 마련됐지만 옛정취를 만끽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12개의 1백여년된 용기가 펄럭이고 각종 놀이판에는 크고 작은 깃발이 나부끼면서 전국최초의 난장은 옛 낭만을 되새기도록 유도했다. 거의 반세기만에 재현되는 난장은 농악대의 흥겨운 가락이 기린봉에 메아리되고 판소리의 발상지답게 국악무대에서는 전국 유일한 전주시립 민속예술단의 창악, 무용, 기악등 전라도 특유의 소리가 향토 국악진흥의 맥을 잇는다. ...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난장은 전주말고도 개성, 안동, 공주지방에서 유명했고 조선조말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러나 민속문화와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일제의 정책과 6·25사변을 거치는동안 우리주변서 거의 사라져갔고 현대 산업사회의 물결에 말려 소멸되었다는 것. 특히 난장을 든 최용복시장은 이번 난장의 의의를 '하부구조의 문화, 민중속의 잊혀진 숨결을 재현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자라는 세대에 교육적 효과를 4-50대 이상에게는 옛날을 돌아보게 하는데 뜻이 있다'고 풀이했다.(84. 6. 1)

1990년대 144

민선단체장 시대 개막 |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대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지방정치의 역할이 필요했으나 '반쪽짜리 지방시대'에는 정치권의 역할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게 일반적인 분위기였고 실제 그 역할 또한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일부 지방자치법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권이 중앙에서 지역주민의 손에 넘어오면서 지방정치권의 역할이 막 증해졌다. 주민과 행정 의회의 조정 중재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정책과정에 반영시키고 주민의 반응을 바탕으로 정책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 중재자 역할의 핵심은 여야 지도부이다. 따라서 지방시대를 맞아 각 지구당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당의 대폭적인 인력 및 업무보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95. 7. 5)

부록 1 - 일제시대 전복자료 목록 183

부록 2 - 일제시대 전주관련 기록물 목록 193